

▶ 임실 치즈마을에서 벌어지는 '맛있는' 파티

“단돈 5000원에 맥주 무한리필” 치맥·음악회로 흥겨운 주말을

군, '치즈마을 작은음악회'
'치맥파티' 내일 동시 개최

힐링콘서트·비보이 공연
노래자랑 등 프로그램 다채



임실 치즈마을에서 오는 12일 '제13회 치즈마을 작은음악회'와 '치맥파티'가 함께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치즈마을 작은음악회.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여 활기찬 마을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는 임실 치즈마을에서 12일 '제13회 치즈마을 작은음악회'와 '치맥파티'가 함께 열린다.

임실치즈마을은 전국 최초로 낙농과 치즈 체험을 시작하여 연 5만명 이상의 체험객이 찾고 있는 농업의 6차 산업화를 대표하는 행복한 농촌마을이다.

이번 축제는 임실군의 생활문화예술동호회 공연을 시작으로 힐링콘서트, 비보이 공연, 통기타 페스티벌, 노래자랑, 물놀이 등 여름방학의 무더위를 날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오감을 만족하는 음악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치맥파티는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운영하며, 1인당 5천원 이내 기념품 컵을 이용하여 어린이는 음료 무한리필, 어른은 맥주 무한리필을 제공하고 치즈를 이용한 다양한 요리와 치킨도 준비되어 있다.

또한 방문객들의 교통편리 도모와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임실터미널에서 치즈마을까지 30분 간격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올 13회째를 맞는 치즈마을 작은음악회는 한여름 느티나무 그늘 밑에서 시원한 바람과 함께 치즈요리와 더불어 문화를 즐기며 지역주민과 도시민이 함께 어울어지는 화합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기봉 임실치즈마을위원장은 “금번 음악회는 주민이 함께하고 알차고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으로 치즈마을을 대내외 홍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심민 임실군수는 “임실치즈마을은 임실엔 치즈·낙농특구의 중심지이며, 또한 금번 8월 농림축산식품부의 6차산업화 지구조성사업 핵심지역으로 선정되어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될 경우 치즈마을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실치즈마을(cheese.invil.org, 063-643-3700)로 연락하면 된다. /임실=진종영 기자

임실치즈마을을 대내외 홍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심민 임실군수는 “임실치즈마을은 임실엔 치즈·낙농특구의 중심지이며, 또한 금번 8월 농림축산식품부의 6차산업화 지구조성사업 핵심지역으로 선정되어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될 경우 치즈마을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실치즈마을(cheese.invil.org, 063-643-3700)로 연락하면 된다. /임실=진종영 기자

군산출신 대한민국예술대전 대상작가 초대전 개최

신치현·김수나씨 등... 23일까지 군산예술의전당서

군산예술의전당 2, 3전시실에서 기획전시로 진행되는 군산출신 대한민국 미술대전 대상 출신의 작가 초대전을 23일까지 연다.

대한민국 미술대전(이하 국전)은 1949년 창설되어 1981년까지 존속된 대한민국미술전람회(官展) 성격을 민영화시킨 것으로 한국미술협회에서 주최하여 한국화, 양화, 판화, 조각 등 총 네 부문에서 최고의 작품들에게 시상하고 있는 종합미술계의 가장 권위 있는 상 중 하나이다.

군산에당에서 만나게 될 초대전의 주인공인 신치현 작가는 군산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로 상경해 홍익대학교 조소과를

입학하고 석·박사과정을 마쳤으며, 1998년 차갑고 무감각한 알루미늄을 통해 현대 문명의 생태계 파괴와 인간성의 상실을 표현한 earth(지구)라는 작품으로 대한민국 미술대전 대상을 수상했다.

또 다른 초대전에서 만날 김수나 작가는 원광대학교 서예과에 입학하고 석사를 졸업하여 전북아트페어, 독락전 등 다수의 개인전과 초대전을 진행했으며, 지난해 강원도 생동감 넘치는 붓 터치와 전체적인 절제미가 돋보인다는 평을 받으며 대한민국 미술대전 문인화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군산=김관곤 기자

복합문화지구 누에 '내:일공방 아카데미' 2기 수강생 모집

(재)완주문화재단 복합문화지구 누에(nue)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2017 내:일 공방 아카데미' 2기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내:일공방'은 단순한 공예체험교육을 넘어 내일(tomorrow, my job)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지역 내 다양한 네트워크가 함께하는 자생적 교육플랫폼을 지향하고 있다.

'내:일공방 아카데미'는 5월부터 7월까지 1기 아카데미가 운영됐으며, 2기 아카데미는 9월부터 12월까지 프로그램별 입문·심화 커리큘럼을 통해 현장중심 수업으로 이뤄진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도자기에 민화 입히기 △흙 속에서 힘을 찾는 생활자기 △천연염색 이룬과 실기 △은주열리 만들기.

또 △핸드메이드 주얼리 제작 △생활목가구 만들기 등 4개 분야(도자·섬유·금속·목공)

11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며, 완주군은 수강료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은 완주문화재단 홈페이지(http://www.wfac.or.kr/)에서 볼 수 있다.

아카데미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완주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8월 25일까지 이메일(openspace.nue@gmail.com)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완주 복합문화지구 누에(063-246-3953, 이단비 매니저)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복합문화지구 누에(nue, new art experience/new experiment/new education/new energy)는 문화체육관광부 산업단지 및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완주군(구)잠업시합장 단지에 조성된 복합문화공간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로컬푸드 '예술농부' 참여작가 24일까지 공개 모집

(재)완주문화재단(이사장 박성일)이 완주 대표 브랜드 '로컬푸드'와 예술의 창조적 결합으로 로컬푸드의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더하고자 추진하는 '완주로컬푸드, 예술이 되다 예술농부'의 참여 작가를 공개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영상, 문학, 사진분야 전문 예술인 또는 단체(컨소시엄 참여 가능)로 모집기간은 24일까지다.

완주로컬푸드, 예술이 되다 '예술농부'는 하늘과 땅 사이 조화를 이루며 생명을 창조하는 '농부' 그들의 삶의 지혜를 영상, 문학, 사진 등 전문 예술로 담아내는 작업이다.

특히, 열굴 있는 먹거리로 신뢰받는 완주로컬푸드의 생산·유통 중심의 브랜드에 가치 중심의 의미를 더하고, 각박한 현대인들에게 자연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조화로운 삶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기획됐다.

참가신청서류는 완주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으며, 21일부터 24일까지 이메일 접수하면 된다. /완주=이종복 기자

천혜 비경 섬진강, 한 폭의 그림에 담다

순창군, '전국사생공모전' 진행... 15일부터 원서 교부

순창군이 천혜의 비경을 간직한 섬진강을 한 폭의 그림에 담는 '섬진강 전국사생공모전'을 진행한다.

올해 3번째를 맞는 섬진강 사생공모전은 섬진강 물길 구간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순창지역 섬진강과 강천산을 전국에 알려 지속적으로 관광객들의 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행사다. 작품 범위는 장군목, 용골산, 향가유원지, 강천산 등 순창군의 주요 관광지다.

원서 교부기간은 오는 8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이고 작품 접수기간은 10월 17일부터 11월 14일까지 4주간이다. 방문제출이나 등기 우편, 택배를 통한 방문접수 가능하다. 단 월요일은 미술관 휴관일로 방문접수가 불가하다. 1인 2작품 이내 접수가 가능하고 작품 접수 시 순창군 방문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샷을 첨부해야 한다.

시상은 심사위원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연말

에 있을 계획이며 일반부 대상 수상자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5백만원의 시상금이, 최우수상은 전라북도지사 상장과 300만원의 상금이, 우수상은 순창군수 상장과 백만원의 상금이 각각 주어진다. 특별상, 특선, 입선 작품도 선정된다.

학생부 대상 수상자에게는 교육부장관상과 50만원의 상금이, 금상 수상자는 전북도교육감과 30만원의 상금이, 은상 수상자에게는 순창군수상과 20만원의 상금이 동상에는 순창군의회의장상과 1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군은 섬진강 전국사생공모전 입상작들은 전시 및 도록을 발간하고 입상작 작품을 활용한 전시회 등을 통해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신간 도서

방황하는 예술가들의 이야기

상처받는 자를 위한 필독서

▶ 방주 '푸른 화가의 진실'

▶ 성호승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

예술가들의 사랑과 작품, 타고난 재능과 갑자기 얻게 된 재능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선보이는 독특한 장르소설이다. 방주씨가 예술에 사로잡힌 세 예술가의 개성과 광기 어린 모습을 섬세하게 그려낸 작품이다.



더없이 아름다운 자신의 초상화에 매료된 도리엔 그레이처럼, 더없이 아름다운 재능을 둘러싼 시기와 질투, 등가교환의 대가, 삶과 예술, 욕망과 도덕성, 우정과 사랑 사이에서 방황하는 젊은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다.

**344쪽, 별첨, 1만3000원.

사랑하는 이가 떠나간 이후의 마음은 온전히 일방적인 것이라 쉽지가 않다.

이젠 곁에 없는 사람을 홀로 회상하며 행복을 빌어주거나 여간 마음이 많이 쓰이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저자 성호승씨는 책에서 지금 당신을 괴롭게 하는 그 상처에 따지가 앉아 아픈 후에는 어떤 일에도 아프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전한다.

삶에 치여서 사랑에 지쳐서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작가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있다.

**백현서 그림, 260쪽, 경향BP, 1만3500원. /뉴시스

“자동차 이젠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대표전화 : 1600 - 2542



대표 이영근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